

# 청소년의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여유형과 참여정도가 정서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

한상준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 A Study on Influence of Adolescents' Participation Type/Degree in Recreational Activities on Emotional Empathy

Han, Sang-Jun  
Jeonju University College of Culture Convergence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레크리에이션활동 참여유형과 참여정도가 정서적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알아보고 그에 따른 인과관계를 알아보는데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공감의 차이를 규명한 결과 통계적으로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의 정서감염인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참여유형에 따라 차이를 규명한 결과 통계적으로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의 긍정적 공유, 정서개입보다는 정서감염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참여정도에 따른 정서적 공감의 차이를 규명한 결과 참여빈도, 참여시간, 참여기간에 따른 하부변인으로는 정서개입보다는 긍정적 공유, 정서감염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참여정도와 정서적 공감과의 인과관계를 알아본 결과 참여정도는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인 긍정적 공유와 정서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여유형, 참여정도, 정서적 공감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n emotional empathy given by type and degree of adolescent participation in recreational activities, and investigate the associated causal relationship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emotional empathy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results statistically indicated emotional contagion is a subfactor of emotional empathy. Second, analyzing the differences based on participation type, the results statistically indicated emotional contagion is more influential than positive sharing and emotional intervention, which are sub-factors of emotional empathy. Third, analyzing the differences based on participation degree, the variables influencing participation frequency, participation time, and participation period were positive sharing and emotional contagion, rather than emotional intervention. Fourth, analyz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degree and emotional empathy, the results revealed that participation degree affects positive sharing and emotional contagion, which are sub-factors of emotional empathy.

**Key Words** : Adolescent, Recreational Activities, Participation Type, Participation Degree, Emotional Empathy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건강을 한 신체적인 활동이라는 고정인 인식에서 취미, 오락, 기분전환 등과 같이 개인이 선택한 활동에 스스로 참가하여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동시에 문화·사회 측면에서 창조적인 여가의 활동 형태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 사회 내에서 중요한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1]. 또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산업화와 도시화된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고 삶에 대한 의욕과 질을 높여줌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문화의 형태로 인정받고 있다[2,3].

교육과학기술부[4]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정서의 함양에 대한 교육을 중요시 하고,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서함양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현대사회는 빠른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점점 경쟁이 치열해 지는 부정적인 여파로 인한 극심한 이기주의와 경제적불평등(빈부격차) 등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미양[5]은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은 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노출되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청소년의 사회성 및 정서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초등학생 삶의 만족도의 중단적 변화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도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정점(3.26점)을 찍지만, 중학교(3.16점) 들어서면서 급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아동(0~17세)들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50.5%로 유엔아동기금(UNICEF) 조사 대상국가인 29개국에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6].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문화·사회·교육 제약으로 인하여 여가활동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원인중 하나는 지나친 입시 주의 교육으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여가시간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학

교생활에 할애하고 있는 시간은 미국의 경우 6시간, 일본의 경우 8시간, 한국은 12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순수한 여가시간은 청소년의 경우 3시간 이하가 79.6%, 고등학생은 86.1%로 나타났다[7].

Ragheb과 Mckinney[8]의 연구에서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가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여가 많을수록 인지된 대학의 학문적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참여에 대한 만족이 클수록 인지된 대학의 스트레스는 낮아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소년의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여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특성으로 주변인 및 또래집단과 어울림을 통해서 레크리에이션 활동에서 만이 제공할 수 신체활동을 통한 감정을 표출 하므로써 정서적 공감발달의 향상에 기대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와 이론에 입각하여 청소년들의 레크리에이션활동 참여유형과 참여정도가 정서적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레크리에이션 참여유형과 정도가 정서적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따른 인과관계를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참여정도와 정서적 공감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의해 설정한 구조모형을 통해서 각 개념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공감과의 차이를 알아 볼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여유형에 따른 정서적 공감과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여정도에 따른 정서적 공감과의 차이를 규명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들의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여정도는 정서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낼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 5개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에 거주하며 본 연구의 내용을 상세 설명한 후 연구 취지에 맞게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중학생-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편의표본추출법을 통해 표집 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을 활용하여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반복되거나 응답하지 않아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불성실한 자료 14부는 제외한 후 총 486부의 최종 유효 표본만 자료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참여유형과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Table 1 과 Table 2 와 같다. Table 1 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263명, 여학생이 223명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중학생이 294명, 고등학생이 192명으로 나타났고, 지역으로는 서울특별시가 136명 → 경기도가 130명 → 강원도가 117명 → 전라북도가 103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유형에는 지적 레크리에이션 참여가 120명, 예술적 레크리에이션 참여가 103명 → 오락적 레크리에이션 참여가 62명 → 신체적 레크리에이션 참여가 95명 → 사회적 레크리에이션 참여가 106명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and participation type of research objects

	Category	Frequency (Persons)	(%)
Sex	M	263	54.1
	F	223	45.9
	Total	486	100.0
Grade (School)	Middle	294	60.5
	High	192	39.5
	Total	486	100.0
Residence Area	Seoul	136	28.0
	Gyeonggi	130	26.7
	Gangwon	117	24.1
	Jeonbuk	103	21.2
	Total	486	100.0
Participation Type	Academic	120	24.7
	Arts	103	21.2
	Entertainment	62	12.8
	Physical	95	19.5
	Social	106	21.8
Total	486	100.0	

Table 2. Degree of participation in recreation

	Frequency (Persons)	(%)	
Participation Frequency	1/month	87	17.9
	2/month	147	30.2
	3/month	161	33.1
	4/month	74	15.2
	5/month or more	17	3.5
Total	486	100.0	
Participation Time	30mins or less	57	11.7
	30mins~1hr	114	23.5
	1hr~1hr 30mins	187	38.5
	1hr 30mins~2hrs	97	20.0
	2hrs or more	31	6.4
Total	486	100.0	
Participation Period	6mths or less	90	18.5
	6mths~1yr	106	21.8
	1yr~1yr 6mths	195	40.1
	1yr 6mths~2yrs	76	15.6
	2yrs or more	19	3.9
Total	486	100.0	

### 2.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여유형과 정도가 정서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연구도구로 활용하였다.

#### 2.2.1 레크리에이션 참여유형과 참여정도

레크리에이션 참여유형과 참여정도는박상열과 김상룡[9,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과 설정한 모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참여유형으로는 지적 레크리에이션, 예술적 레크리에이션, 오락적 레크리에이션, 신체적 레크리에이션, 사회적 레크리에이션으로 구성했으며, 참여정도는 참여빈도, 참여시간, 참여기간으로 구성되어있다.

#### 2.2.2 정서적 공감

정서적 공감의 공감척도는 Mehrabian과 Epstein[11]의 정서적 공감능력 척도와 Caruso와 Mayer[12]가 개발한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정서적 공감 척도를 토대로 정명선[13]이 사용한 바 있는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하위영역으로는 긍정적 공유 6문항, 정서감염 6문항, 정서개입 4문항이며, 모두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측정하였다.

정서적 공감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중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통해서 각 요인별로 요인

적재치(Factorloading)가 0.5 이상인 문항들만을 선택구성 하였다. 그 결과 Table 3 과 같이 긍정적 공유, 정서감염, 정서개입 3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공감의 개념타당성을 나타내는 누적 분산율은 78.140%로 나타나 비교적 높게 나타나있다.

Table 3.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emotional empathy

	Emotional Contagion	Positive Sharing	Emotional Involvement	h2
Emotional Contagion5	.918	.068	.019	.601
Emotional Contagion3	.914	.092	.086	.755
Emotional Contagion6	.898	.081	.066	.768
Emotional Contagion1	.885	.076	.029	.798
Emotional Contagion4	.855	.024	.032	.816
Emotional Contagion2	.846	.119	.066	.766
Positive Sharing5	.113	.878	.182	.790
Positive Sharing4	.043	.876	.170	.734
Positive Sharing6	.061	.847	.209	.850
Positive Sharing2	.096	.827	.248	.732
Positive Sharing3	.069	.819	.304	.848
Positive Sharing1	.129	.659	.388	.818
Emotional Involvement3	.077	.267	.890	.788
Emotional Involvement2	.072	.255	.885	.853
Emotional Involvement1	.076	.266	.844	.870
Emotional Involvement4	.000	.347	.772	.717
Eigen Value	4.780	4.411	3.311	
Variance(%)	29.874	27.569	20.696	
Cumulative(%)	29.874	57.443	78.140	
Reliability Coefficient	.948	.930	.920	

또한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검사를 이용하여 내적일관성을 검증하였다. Nunnally와 Bernstein[14]은 .7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검사 결과 정서적 공감의 신뢰도 계수는 .920~.948, 로 나타나 각 요인은 내적일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3 자료처리 방법

수집된 표본 중 연구에 불성실하여 신뢰도가 낮아 적합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최종 유효표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처리방법으로 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과 설문문항을 검증하기 위해 PASW Ver. 18.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PASW Ver. 18.0을 활용하여 차이검증(t-test, One Way ANOVA)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모든 검증의 유의 수준은  $\alpha=.05$ 에 검증되었다.

## 3. 결과 및 논의

### 3.1 결과

성별에 따른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에서 긍정적 공유는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감염과 정서개입은 여학생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성별에 차이를 보이는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으로는 정서감염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참고).

Table 4. Result of t-test of emotional empathy by gender

	Sex	N	Mean	Standard Deviation	t	p
Positive Sharing	M	263	3.5013	1.07885	.291	.775
	F	223	3.4753	.88801		
Emotional Contagion	M	263	1.8980	.86911	-3.560	.000
	F	223	2.2085	1.02764		
Emotional Involvement	M	263	3.9401	.90849	-.140	.889
	F	223	3.9507	.75474		

학년에 따른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은 긍정적 공유, 정서감염, 정서개입 모두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으로는 정서감염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고).

Table 5. Result of t-test of emotional empathy by grade

	Grade (School)	N	Mean	Standard Deviation	t	p
Positive Sharing	Middle	294	3.4235	1.01361	-1.811	.071
	High	192	3.5903	.95945		
Emotional Contagion	Middles	294	1.9178	.78158	-3.539	.000
	High	192	2.2283	1.15273		
Emotional Involvement	Middle	294	3.9014	.83393	-1.416	.157
	High	192	4.0117	.84858		

지역에 따른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은 긍정적 공유는 강원도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뒤로는 전라북도→경기도→서울특별시 순으로 나타났고, 정서감염은 전라북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강원도→경기도→서울특별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서개입은 경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는 강원도→전라북도→서울특별시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으로는 정서감염(전북>서울)과 정서개입(경기>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고).

Table 6. Result of t-test of emotional empathy by residential area

Residence Area	N	Mean	Standard Deviation	F	p	P-H
Positive Sharing	Seoul	136	3.3799	1.11567	.940	.421
	Gyeonggi	130	3.4885	.97827		
	Gangwon	117	3.5812	.89288		
	Jeonbuk	103	3.5307	.95650		
	Total	486	3.4894	.99492		
Emotional Contagion	Seoul	136	1.8272	.83676	4.834	.003
	Gyeonggi	130	2.0103	.83598		
	Gangwon	117	2.1068	1.03309		
	Jeonbuk	103	2.2848	1.09605		
	Total	486	2.0405	.95678		
Emotional Involvement	Seoul	136	3.7941	.94128	2.655	.048
	Gyeonggi	130	4.0712	.79985		
	Gangwon	117	4.0000	.78372		
	Jeonbuk	103	3.9223	.79059		
	Total	486	3.9450	.84061		

참여유형에 따른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은 긍정적 공유에서는 신체적 레크리에이션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는 예술적 레크리에이션→지적 레크리에이션→사회적 레크리에이션→오락적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감염은 신체적 레크리에이션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는 사회적 레크리에이션→예술적 레크리에이션→지적 레크리에이션→오락적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나타났고, 정서개입은 신체적 레크리에이션이 가장 높은 비율 나타났고, 그 뒤로는 사회적 레크리에이션→지적 레크리에이션→오락적 레크리에이션→예술적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참여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으로는 정서감염(신체적, 사회적>오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참고).

Table 7. Result of t-test of emotional empathy by participation type

Participation Type	N	Mean	Standard Deviation	F	p	P-H
Positive Sharing	Academic	120	3.4056	1.03120	2.055	.086
	Arts	103	3.5275	1.02051		
	Entertainment	62	3.3737	1.06256		
	Physical	95	3.7281	.84602		
	Social	106	3.4009	.99091		
	Total	486	3.4894	.99492		
Emotional Contagion	Academic	120	1.9556	.92272	6.507	.000
	Arts	103	1.9628	.93379		
	Entertainment	62	1.6263	.66508		
	Physical	95	2.3368	1.06663		
	Social	106	2.1887	.96117		
	Total	486	2.0405	.95678		
Emotional Involvement	Academic	120	3.9292	.88414	1.671	.156
	Arts	103	3.8301	.82709		
	Entertainment	62	3.8589	.85725		
	Physical	95	4.1158	.76563		
	Social	106	3.9717	.84679		
	Total	486	3.9450	.84061		

참여빈도에 따른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은 긍정적 공유, 정서감염, 정서개입 모두 월 5회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뒤로 월 4회→월 3회→월 2회→월 1회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참여빈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으로는 긍정적 공유(월 4회, 월 5회 이상>월 1회)와 정서감염(월 5회 이상>월 1회, 월 2회, 월 3회, 월 4회; 월 4회>월 1회, 월 2회, 월 3회; 월 3회>월 1회; 월 2회>월 1회)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참고).

Table 8. Result of t-test of emotional empathy by participation frequency

Participation Frequency	N	Mean	Standard Deviation	F	p	P-H
Positive Sharing	1	87	3.1513	1.21777	6.000	.000
	2	147	3.4615	.87173		
	3	161	3.4928	1.00214		
	4	74	3.8063	.75501		
	5	17	4.0490	1.01510		
	Total	486	3.4894	.99492		
Emotional Contagion	1	87	1.4061	.65872	40.539	.000
	2	147	1.8424	.71853		
	3	161	2.1294	.87261		
	4	74	2.6081	1.07957		
	5	17	3.6863	.88169		
	Total	486	2.0405	.95678		
Emotional Involvement	1	87	3.8678	1.04119	1.464	.212
	2	147	3.9048	.70184		
	3	161	3.9363	.79071		
	4	74	4.0439	.91726		
	5	17	4.3382	.86576		
	Total	486	3.9450	.84061		

1= 1/mth, 2= 2/mth, 3= 3/mth, 4= 4/mth, 5= 5/mth or more

참여시간에 따른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은 긍정적 공유, 정서개입은 2시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1시간 30분~2시간 미만→30분~1시간 미만→1시간~1시간 30분 미만→30분 미만 순으로 나타났고, 정서감염은 2시간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뒤로 1시간 30분~2시간 미만→1시간~1시간 30분 미만→30분~1시간 미만→30분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참여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정서적 공감의 하위요인으로는 긍정적 공유(30분~1시간 미만, 1시간 30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30분 미만), 정서감염(2시간 이상>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1시간 30분 미만, 1시간 30~2시간 미만; 1시간 30분~2시간 미만, 1시간~1시간 30분, 30분~1시간>30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참고).

Table 9. Result of t-test of emotional empathy by participation hours

Participation Time	N	Mean	Standard Deviation	F	p	P-H	
Positive Sharing	1	57	2.9883	1.23357	7.086	.000	2, 4, 5>1
	2	114	3.5044	.90678			
	3	187	3.4323	.95298			
	4	97	3.7388	.90392			
	5	31	3.9194	.96405			
	Total	486	3.4894	.99492			
Emotional Contagion	1	57	1.2632	.52981	30.013	.000	5>1, 2, 3, 4; 2, 3, 4>1
	2	114	1.7865	.65683			
	3	187	2.0802	.86072			
	4	97	2.3763	1.04839			
	5	31	3.1129	1.25859			
	Total	486	2.0405	.95678			
Emotional Involvement	1	57	3.7807	1.09694	1.762	.135	
	2	114	3.9408	.72358			
	3	187	3.9051	.81155			
	4	97	4.0361	.80686			
	5	31	4.2177	.93484			
	Total	486	3.9450	.84061			

1= 30mins or less, 2= 30mins~1hr, 3= 1hr~1hr 30mins, 4= 1hr 30mins~2hrs, 5= 2hrs or more

참여기간에 따른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은 긍정적 공유, 정서감염, 정서개입 모두 2년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뒤로 1년 6개월~2년 미만→1년~1년 6개월 미만→6개월~1년 미만→6개월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참여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으로는 긍정적 공유(2년 이상, 1년 6개월~2년 미만>6개월 미만), 정서감염(2년 이상>1년 6개월~2년 미만, 1년~1년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6개월

미만; 1년 6개월~2년 미만>1년~1년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6개월 미만; 1년~1년 6개월 미만>6개월~1년 미만, 6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참고).

청소년의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여자의 참여정도와 정서적 공감과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Table 11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Table 11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여자의 참여정도는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인 긍정적 공유와 정서개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개입에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0. Result of t-test of emotional empathy by participation period

Participation Period	N	Mean	Standard Deviation	F	p	P-H	
Positive Sharing	1	90	3.1630	1.16706	5.203	.000	4, 5>1
	2	106	3.4403	.97974			
	3	195	3.5128	.92346			
	4	76	3.7697	.85936			
	5	19	3.9474	.98139			
	Total	486	3.4894	.99492			
Emotional Contagion	1	90	1.4519	.66725	38.300	.000	5>1, 2, 3, 4; 3>1, 2
	2	106	1.7767	.69765			
	3	195	2.0991	.89088			
	4	76	2.5592	.97171			
	5	19	3.6228	1.08560			
	Total	486	2.0405	.95678			
Emotional Involvement	1	90	3.8639	1.05479	1.870	.114	
	2	106	3.8726	.75926			
	3	195	3.9269	.76116			
	4	76	4.1053	.83293			
	5	19	4.2763	.86560			
	Total	486	3.9450	.84061			

1= 6mths or less, 2= 6mths~1yr, 3= 1yr~1yr 6mths, 4= 1yr 6mths~2yrs, 5= 2yrs or more

하부요인별로 살펴보면 참여정도와 정서적 공감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공유와의 관계에서 참여정도는 긍정적 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9.075; p= .000). 그러나 참여정도의 하부요인인 참여빈도(t= 1.454; p= .147), 참여시간(t= 1.772; p= .077), 참여기간(t= .749; p= .454)은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참여정도가 긍정적 공유의 변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도와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인 정서 감염과의 관계에서 참여정도는 정서 감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61.083; p= .000). 참여정도의 하부요인인 참여빈도(t= 4.236; p= .000), 참여시간(t= 3.031; p= .003), 참여기간(t= 2.818; p= .005)은 모두 정서

감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도가 정서 개입의 변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도와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인 정서 개입과의 관계에서 참여정도는 정서개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 2.193$ ;  $p= .088$ ). 참여정도의 하부요인인 참여빈도( $t= .193$ ;  $p= .147$ ), 참여시간( $t= .853$ ;  $p= .394$ ), 참여기간( $t= .857$ ;  $p= .392$ )은 정서 개입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참여정도가 정서 개입의 변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Analysis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degree and emotional empathy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B	Standard Error	Beta		
Positive Sharing	(Constant)	2.830	.134		21.047	.000
	Frequency	.093	.064	.099	1.454	.147
	Time	.102	.057	.109	1.772	.077
	Period	.049	.066	.053	.749	.454
$R^2= .053$ ; $F= 9.075$ ; $p= .000$						
Emotional Contagion	(Constant)	.625	.113		5.524	.000
	Frequency	.228	.054	.252	4.236	.000
	Time	.146	.048	.163	3.031	.003
	Period	.156	.055	.175	2.818	.005
$R^2= .275$ ; $F= 61.083$ ; $p= .000$						
Emotional Involvement	(Constant)	3.668	.116		31.624	.000
	Frequency	.011	.055	.013	.193	.847
	Time	.042	.049	.054	.853	.394
	Period	.049	.057	.062	.857	.392
$R^2= .013$ ; $F= 2.193$ ; $p= .088$						

### 3.2 논의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의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여유형과 참여정도에 따른 정서적공감과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그 결과,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공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으로는 정서감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정서적인 부분에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높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에서는 정서감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년이 높ی 올라갈수록 정서적인 측면과 이를 공유하려는 측면에 대한 지각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으로는 정서감염과 정서개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서울특별시와 같이 학업경쟁력이 치열한 지역의 성향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정서적인 감정과 이를 공유하려는 성향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박소정[15]의 연구에서 성별과 학년에 따라 정서적 공감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정서적 공감을 지각하는 부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이러한 차이를 두고 김성일,김성은[16,17]과 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공감의 차이와 관련하여 정서공감척도의 남녀요인과의 구조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높은 공감수준을 형성하고 있다고 발견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언어능력이 뛰어나며, 사람에 대한 정서적 민감성과 정서적 표현 또한 강하고 깊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조사되고 있다[18]. 이러한 차이에 대한 경향이 여성은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반면 남성은 이성적이며 과묵해야하는 사회적인 편견에게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참여유형에 따른 정서적 공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참여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으로는 정서감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와 또래집단 그리고 지역과의 유기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참여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 정서적 공감을 위해 타인의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적절한 시기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공감에 대한 반응을 나누면서 친밀감을 느끼고 표현하는 정서적 공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참여정도에 따른 정서적 공감의 차이를 규명한 결과 통계적으로 참여빈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으로는 긍정적 공유와 정서감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결과는 레크리에이션 참여의 빈도가 높을수록 정서적 공감이 높게 나타남을 판단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참여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으로는 긍정적 공유, 정서감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결과는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여에 대한 시간이 많을수록 정서적 공감에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참여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으로는 긍정적 공유, 정서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레크리에이션 참여기간이 길수록 정서적 공감에 대해 높게 나타남을 판단할 수 있다. 소영호[19]의 생활체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참여정도가 높게 나타난 집단이 참여정도가 낮게 나타난 집단보다 공감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넷째, 참여정도와 정서적 공감과의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결과에서 참여정도는 정서적 공감의 하부요인인 긍정적 공유와 정서 감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 개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최승원[20]의 연구에서는 동료들과 경쟁적이면서 협동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예절 및 협동 등의 기본 원리를 습득하고 내면화시킴으로써 타인들과의 상호협조 및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나간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경우에는 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빈도와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정서적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참여정도는 정서적 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지지해주고 있다.

## 4. 결론

### 4.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레크리에이션활동 참여유형과 참여정도가 정서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위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의 정서적 공감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참여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정서 감염이 많은 부분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불안정한 요소들을 다양하고 올바른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참여유형과 정도의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됨으로써 자신의 잠재 능력을 확인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전요소들을 일부해소하며 해결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함과 동시에

더 넓은 해결 방향으로의 지역 간의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의 계공을 통한 문화의 불균형을 조화롭게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레크리에이션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성별, 연령을 융합하는 다양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 4.2 제한점과 제언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연구방법을 활용해 연구를 수행하여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해결하지 못한 제한점과 그에 따른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일부지역에 제한되어 개인적 특성 차에 따른 참여유형과 정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지속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1회적인 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와 함께 다양하고 폭넓은 측정도구의 개발과 함께 여러 가지 상황 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실시될 필요성이 있다.

## REFERENCES

- [1] K. S. Yoo. (2016). *Influence of an Adolescent's Game Element Creation Activity on Study Stress, Self-Esteem, Depression and Suicidal Impulse*, Chungnam National Univ.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 [2] W. K. Baek. (2000). Analysis of Difference in Leisure Satisfaction consequent on Addition of Extracurricular Unsupervised Sports Activity. *Academic Journal of the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38, 1078-1094.
- [3] B. H. Gu. (2002). *A Study on an Adolescent's Recreation Activity Participation Degree, Morality and Social Relation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Myongji Univ. Graduate School.
- [4]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Implementation of School Sports Club Activity in All Middle Schools*.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Release.
- [5] M. Y. Han. (2013). *Development of early childhood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through art activities*, Kang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 [6] K. W. Seo, (2015). Children who are happy only when they are elementary students...Student Happiness Index falling from the Middle School. *The Herald Business*, 2015, 11, 27.
- [7]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2010).*The 2009 Survey o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Study*, 2010(4), 3-15.
- [8] M. G. Ragheb & J. Mcikinney. (1993). Campus recreation and perceived academic stres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4, 5-10.
- [9] S. R. Park. (2008). *A Study on Recreation Program Revitalization Plan for Senior Welfare Service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 Graduate School.
- [10] S. R. Kim. (2009) *A Study on Relationships between a College Student's Participation in Leisure Recreation and Stress, Self-Esteem and Self-Realization*. Unpublished Doctoral Thesis. Mokpo National Univ. Graduate School.
- [11] A. Mehrabian & N. Epstei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5-543.
- [12] D. R. Caruso & J. D. Mayer. (1998).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for Adolescents and Adults*.
- [13] M. S. Chung. (2012). *A Study on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Balanced Emotion Empathy Scale*. *Counseling Studies Research*, 13(4), 1781-1797.
- [14] J. C. Nunnally & I. H. Bernstein. (1994).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15] S. J. Park. (2014).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and Empathy consequent on a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after-school School Sports Club*.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 Graduate School.
- [16] S. I. Kim. (1998). *Parents' Acceptance and Youth's Empathy Development*. *Youth Studies Research*, 5(1), 21-51.
- [17] S. E. Kim. (1997). *A Study on Relationships between a Student's Emotion Resonance and School Record, In-Class Sociality and Attitude toward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 Graduate School.
- [18] M. J. Song. (1994). Diagnosis and Evaluation of Korean Middle/High School & College Students' Psychology, and Social Maturity: Analysis of Social Norms and Responsibility Judgment . *Academic Journal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evelopment*, 7(2), 53-73.
- [19] Y. H. So. (2014). A Study on Influence of Empathic Ability of a Participant in Sports for All on Resilience

and Happiness. *Academic Journal of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53(1), 167-180.

- [20] S. W. Choi. (2004). *A Study on Development of Self Conception and Sociality consequent on a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 Graduate School.

한 상 준(Han, Sang Jun)

[정회원]



- 2003년 8월 : 전주대학교 생활체육학과(체육학석사)
- 2016년 2월 : 전주대학교 생활체육학과(체육학박사)
- 관심분야 : 스포츠사회학/리더십/여가/레크리에이션

▪ E-Mail : event4572@hanmail.net